

주요 내용

■ 업종별 韓日 산업협력의 가능성 ■

산업협력의 필요성

- 조화로운 한일간 산업구조의 형성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
- EU, NAFTA 등 지역경제공동체에 대한 한일 공동 대처 필요성

주요 업종별 산업 협력 가능성

- 국내 업체의 요구와 일본 기업의 반응, 그리고 제품간 분업 가능성, 협력시 양국의 이익 증대 가능성 등 경제적 유인을 고려한 결과, 협력 가능성이 큰 업종은 석유화학, 반도체, 자동차 등이며, 작은 업종은 철도차량, 발전설비 등임
- 예컨대 자동차는 아웃소싱과 부품의 공동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며, 반도체는 일본 자본의 참여는 어려우나 高집적 기술의 공동 개발은 가능함

추진 방향

- (발전 수준 고려) 업종별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공동 기술개발 등 전략적 제휴, 제품간 수평적 분업체계의 형성 등 다양한 협력 형태 유도
- (규모의 경제 도모) 동일 제품의 경우는 사양 통일과 부품의 공동 사용 등 추구, 제품간 분업이 가능한 경우는 수평적 분업에 의한 산업내 교역 추구 등
- (가격 하락 억제) 상호 경쟁적인 가격 인하 자제와 지역적 수급 조절 필요

업종별 한일 산업협력의 가능성

김 용 복 ybkim@hri.co.kr ☎ 724-4032

한일 산업협력의 필요성

- 한일 산업협력의 필요성 증대
 - 산업구조가 서로 비슷하고, 특히 중화학공업 분야의 경우 서로 경합하고 있어 세계적인 과잉설비 현상을 초래하였음
 - 양국 모두 과잉설비 해소 등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므로, 서로 협력할 경우 조화로운 산업구조의 형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
 - 유럽, 미주 지역의 경제공동체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간의 지역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- 최근 한일 산업협력 논의와 그 특징
 - 작년 10월의 김대중 대통령 방일, 10월 29일의 제 15회 한·일 재계회의, 12월 1일의 한·일 기업경영간담회를 통해 산업 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
 - 현재 한일 산업협력 논의는 주로 양국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데 맞추어져 있으며,
 - 기존 대일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정책적 차원의 접근에서 벗어나 대규모의 한일 재계간 협력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

주요 업종별 산업협력 가능성 진단

- 분석 대상 및 방법
 - 국내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있는 업종에 한정하여 분석함
 - 우선 한국이 일본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고,
 - 이에 대해 일본의 입장에서 그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함으로써
 - 업종별로 협력의 가능성을 진단함

- 분석 결과

< 업종별 협력 가능성 분석 >

업종	한국의 요청	검토 내용	가능성
석유화학	· 자본 참여 등	· 설비과잉 상태에서 한일 제품간 분업 절실 · 범용 화학제품에서 한국이 비교 우위	한국 범용 화학업체에 대한 일본 자본의 참여 가능 ※ 미쓰이는 현대·삼성 통합법인에 투자 약속
반도체	· 자본 참여 · 공동기술개발 등	· 차세대 D램 기술은 양국이 선두 · 향후 한국 반도체업체와 일본 장비업체간의 관계 긴밀화 전망	· 자본 참여는 곤란 · 고집적 기술의 공동 개발 가능
자동차	· 자본 참여 · 부품 공동 개발과 완성차업체의 부품 공동 적용 · 국내 부품에 대한 outsourcing 등	· 일본 자동차업체의 경영 곤란 ·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경쟁력 제고 필요성 · 일본 기업의 외주 확대 경향	outsourcing과 부품의 공동 개발 등 부품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
조선	· 자본 참여 등	· 벌크선, 유조선 등 상용화물선 분야 공급능력의 세계적 과잉 · 상용 화물선 분야에서 한국의 비교 우위	자본 참여 가능
철도차량	· 자본 참여 · 공동 생산 및 공동 마케팅	· 일본은 이미 핵심 부품을 공급	협력 가능성 낮음
발전설비	· 한국중공업 민영화에의 참여 · 해외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·파이낸싱	· 한국중공업의 기존 기술도입선(구미업계)과의 관계 · 일본 입장에서 한국의 해외 발전사업에 참여할 이점 크지 않음	협력 가능성 낮음
철강	· 자본 참여	· 일본도 구조조정 중이어서 여력 없음 · 포항제철과 新日鐵간 경영권 안정 보장을 위한 상호 지분 보유 움직임	상호 지분 취득 정도만 가능

-
- 이상 국내 업체의 요구과 일본 기업의 반응, 그리고 한일 양국이 생산하는 제품간 분업 가능성, 협력이 양국의 이익 증대 가능성 등 경제적 유인을 고려한 결과,
 - 협력 가능성이 큰 업종은 석유화학, 반도체, 자동차, 조선 등임
 - 협력 가능성이 희박한 업종은 철도차량, 발전설비, 철강 등임

향후 추진 방향

- **업종별로 양국의 발전 수준에 맞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**
 - 상호 대등한 수준의 경우: D램 반도체와 같이 동등한 기술 수준에 오른 산업의 경우에는 차세대 기술의 공동 개발, 상대적 비교 우위 능력의 교환, 공동 마케팅 등 전략적 제휴 형태의 협력이 필요함
 - 제품간 비교 우위가 다른 산업의 경우: 석유화학, 조선과 같이 제품에 따라 경쟁력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제품간 수평적 분업구조의 형성이 필요함. 이를 통해 세계적인 과잉생산 능력의 해소에 기여해야 할 것임
- **규모의 경제를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에 상호 협력해야 함**
 - 동일 제품에 대해서는 사양의 통일, 부품의 공동 사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세계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
 - 제품간 분업이 가능할 경우에는 수평적 분업, 산업내 교역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을 자제하고, 동일 제품 생산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
- **과다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해야 할 것임**
 - 한일 산업간 과다 경쟁은 지나친 가격 하락을 가져오며, 이는 국제적인 반덤핑 규제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함
 -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상호 경쟁적인 가격 인하를 자제하고, 자율적 수급 조절에 노력해야 할 것임. 특히 반도체, 철강, 석유화학 분야에서 협력이 절실한 상황임